POLITICS

전남도새마을부녀회, 변화와 봉사로 거듭난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

해남 우슬체육관서 제23회 한마음어울마당
환경 지킴·나눔·봉사 실천 중심 새 비전 선포

전남도는 1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전남도새마을부녀회 한마음어울마당에서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발맞춘 새로운 새마을운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남새마을부녀회가 주최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장,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옥 해남군의장, 도·군의원, 김정임 중앙새마을부녀회장,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장 등 22개 시군 새마을회원 1000여명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22개 시군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내빈 격려사와 축사 △나눔의 장 △운동회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지역공동체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한유순 영암 덕진면 새마을부녀회장 등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전남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운동과 공동체 발전에 힘써온 김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경옥 전남새마을부녀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행사가 회원 모두의 화합과 희망의 장으로 빛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환경을 지키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새마을정신과 배려·포용의 여성 리더십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이끌어온 부녀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도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의 행복을 전남의 기쁨으로 삼아 전남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전남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이미용 봉사, 해양쓰레기 수거, 나무심기, 재난 구호 활동 등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해남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전남새마을부녀회 한마음어울마당' 행사에서 최경옥 전남새마을부녀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시 산하기관 인사 불투명"
이귀순 시의원, 알박기 의혹 지적

이귀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사진)은 1일 행정자치위원회 질의에서 최근 광주시 산하기관 대표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알박기 의혹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SNS와 시청 현수막을 통해 '광주는 이미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산하 공사·공단·출연 등 기관 29곳 가운데 임기일치제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시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치행정국 소속 서기관이 재직 중에 출연기관인 (사)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하고, 명예퇴직 신청부터 대표이사 선임 진행 과정 전반을 지적하며, "사실상 퇴직 이전부터 자리가 보장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 공무원이 소속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므로 명백히 취업심사 대상인데, 이사회 임명 절차 전에 취업심사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기정 시장이 강조한 '알박기 방지' 제도가 현실에서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알박기 인사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용 범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의 출연기관 취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청년, 광주 어때' 프로젝트 진행
26~28일 전국 청년 100명 모집

광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광주를 직접 경험하는 '청년, 광주 어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챌린지 광주 플렉스(FLEX)'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미식·예술·케이팝 등 세 가지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광주만의 매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 기간에는 2025 광주청년주간과 광주청년센터 주관 청년교류총회가 함께 열려 지역 청년들과 교류 기회도 마련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전국 청년들에게 광주의 활기찬 현재를 알리고, 새로운 연결 고리를 제공해 지역경제와 청년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19세부터 39세까지 광주청년 25명과 외지 청년 75명 등 총 100명을 모집한다. 광주와 타 지역 청년들이 어울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광주의 매력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타지역 청년 비율을 높였다.

참가 신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12일 개별 통보 및 플랫폼 공지를 통해 발표한다.

참가자들은 관심 분야에 따라 '미식·예술·케이팝(K-POP)' 3개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임무(미션)를 수행한다.

참가자들은 3일간의 체험 성과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마지막 날에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소감을 발표하며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우수팀에게는 광주상생카드를 시상금으로 지급한다. 장승기 기자 sky@

정청래 "3대 개혁 시대적 과제 완수하겠다"
"역사적 변곡점… '골든타임' 실기 안돼"
"검찰개혁 이견 없다"…여권 갈등설 일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고,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이라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사진 패널을 당 대표실 복도에 전시했다며 "이 수첩은 무고한 시민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5·18 때처럼 암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지난 20일)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기조와 바뀐 게 없다"며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런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한 발언이 공개된 직후 정 대표가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을 제때 못하면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말한 게 언론 등에서 '대통령의 신중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자 이를 해명하는 뜻을 읽힌다.

대통령실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 대통령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지검장이 29일 시민단체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5적이 법무 장관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시,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
10세 이상 남아 동반입소 제한 해결…사각지대 해소

광주가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나섰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인 '여성인권 보호체계 강화 정책'으로, 여성장애인과 동반 아동 인권보호와 폭력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것이다. 이 시설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시설로 운영된다.

그동안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이용시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입소가 제한돼 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복지협치'가 제안, 민선 8기 공약에 반영돼 정책으로 실현됐다. 시민 제안이 공약 반영을 거쳐 정책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참여 행정 사례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설개선 확충을 통한 포용적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2월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 현장 점검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와 생활공간 부족 등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올해 2~5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6호(258㎡)를 확보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개·보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시설 전환으로 보호 정원은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생활공간도 기존 단독주택 1층 4실에서 다가구주택 6호 11실로 확대되는 등 독립적인 공간에서 가족 단위 보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 광주도시공사·보호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에 기존 일반시설에서 가족보호시설로 유형 전환을 요청해 지난 13일 공식 승인받았다. 시설 운영비도 연간 3억6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국민 아이디어 공모
지방시대위 30일까지 접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일 청년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발상을 정책 개발에 반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참여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이메일(localidea2025@gmail.com)로 개인은 물론 최대 5인까지 팀 구성도 허용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이면 된다.

일자리(창업, 취업 등), 주거·복지·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5극3특 권역별로 받는다.

접수된 제안은 1차 권역별 서면심사(10월)와 최종 대면 PT발표 심사(11월)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최종 선정된다.

심사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상(1건)에게는 지방시대위원장상과 500만 원의 상금을, 최우수상(2건)과 우수상(3건), 장려상(6건)에게도 위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 중 정책 도입 가치가 높거나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 중심의 권역별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초광역 단위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만들어 지방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 실현의 핵심 키 중 하나가 청년들이기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고자 공모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누리집(www.balanc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도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다채
지혜의 숲 도민강좌·민화 특별전·철학으로 시대 해석 특강

전남도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특별전시와 강연,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독서문화 행사의 경우 '제253회 지혜의 숲 도민강좌'가 연말까지 운영된다. 하반기 첫 강연은 4일 김동우 사진작가를 초청,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힌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의 사진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또한 '꾸러기네 독서클럽', '꼬물꼬물 책놀이터', '픽셀 위의 꿈, 우리는 디지털 드로잉 루키즈!', '어른이 된 나를 위한 그림일기', '나와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그림책 원화 전시' 등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이 9월 한 달 동안 흥미롭게 진행된다.

독서의 달에 가장 인기가 많은 특별전시와 체험행사로 2일 오픈하는 목포민화연구회 작가와 회원들의 초청 전시 '도서관, 민화 속에 스며드는 책과 만나다'가 30일까지 펼쳐진다.

29일에는 '철학으로 시대를 해석하다'라는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새로운 K-민주주의를 토대로 탄생한 대한민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철학으로 풀어낸다.

이 밖에도 새로 오픈한 문화마루에서도 다양한 '도서관 주제전시'와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 시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해주는 '연체자 특별 해제행사'도 진행한다.

조병섭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도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독서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독서인구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lib.jeonnam.go.kr)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1-288-5235)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